

대학생의 인터넷 채팅 이용에 따른 감정변화

정혜명^o, 이동수^{*}

^{o*}김포대학 멀티미디어과

e-mail:myoung@kimpo.ac.kr

Usage of Internet Chatting and its Effects on Emotional Changes on Undergraduate Students

Hye-myoung Choung^o, Dong-soo Lee^{*}

^{o*}Dept. of Multimedia, Kimpo College

● 요약 ●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이유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채팅 이용 실태와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 1, 2, 3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연구 대상자들의 대학생이므로 온라인 채팅 이용 현황이 대체적으로 건전하게 나타났고, 감정의 변화 및 우울 정도를 파악한 부분에서도 크게 우려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채팅을 이용하는 시간이 오후나 밤인 경우, 채팅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더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고 중독성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정도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인터넷 채팅(Internet Chatting), 감정변화(Emotional Change), 우울감(Depress)

I. 서론

현대의 대학생들은 과거의 대학생들과 달리 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교제가 일상화 되어 있으며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는 친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인터넷을 통한 인간관계는 온라인 채팅이 현대인에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중에서 채팅에 할애하는 정도를 알아보고 온라인 채팅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감정의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목표를 정하였다.

- 연구 대상자의 채팅 이용 현황을 알아본다.
- 연구 대상자의 채팅 시간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알아본다.
- 연구 대상자의 채팅 이용실태에 따른 우울감 정도를 알아본다.

II. 관련 연구 및 연구 방법

1. 관련 연구

대학생과 인터넷 중독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인터넷 중독과 자존감 및 우울감과의 상관관계 연구는 있었으나 채팅과 우울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은 성별 및 부모의 반응에 따라 부모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가 긍정적

인 경우와 관심이 없는 경우보다 중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보면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주일 평균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낮을수록, 자기 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2. 연구방법

이 논문에서 실시한 설문 내용은 대학생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컴퓨터 사용 문항으로 성, 학년, 최초 컴퓨터 사용 시기, 사용 이유를 조사하고 인터넷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 시간, 인터넷의 사용 용도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채팅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 장소, 이용 시간, 채팅 대상자, 주로 사용하는 채팅 사이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고 채팅 시 사용자의 심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문항과 채팅의 결과로 실제 만남이 성사되는 지에 관한 질문 사항 및 채팅에 대한 개개인의 느낌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는 채팅 및 게임과 관련한 자신의 감정 상태 및 스트레스 우울증을 체크 할 수 있는 문항을 두어 조사 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연구대상자 기초 사항 7문항, 온라인 채팅관련문항 25문항, 지난 2주 동안의 채팅에 관한 연구대상자의 감정상태에 관한 20문항 그리고 청소년용 우울증자가척도 테스트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II. 본 론

온라인 채팅 이용 일반적인 현황은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연구 대상자가 채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집에서 친구들과 밤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은 85.0%에서 하루에 3시간미만으로 나타났고 채팅 시작 시기는 74.5%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채팅 지속 시간은 3-4 시간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1-2시간으로 29.0%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는 실명보다는 닉네임을 이용하는 경우가 21.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온라인 채팅 이용 시간에 따른 감정 변화는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77.5%에서 ‘스트레스가 해소 된다’라고 응답하였고, 변인인 채팅 이용 시간을 보면 채팅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51.5%에서는 ‘학업에 지장을 준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2.0%에서 ‘인내심이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변인인 채팅이용시간을 보면 역시 채팅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60.5%에서는 ‘중독성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이 항목 역시 변인인 채팅이용시간을 보면 역시 채팅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77.5%에서는 ‘비밀스런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응답하였고, 변인인 채팅이용시간을 보면 역시 채팅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59.0%에서는 ‘해로운 면보다 이로운 면이 많다’라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 온라인 채팅 이용 현황

Table 1. The current condition on usage of on-line chatting

항목	구분	인원수	백분율
채팅경험	있다	200	100.0
	없다	0	0.0
채팅장소	집	189	94.5
	PC방	2	1.0
	학교	9	4.5
채팅상대자	친구	181	90.5
	가족	2	1.0
	인터넷 친구	11	5.5
	모르는 사람	6	3.0
채팅이용시간	일주일에 1-3시간	82	41.0
	하루에 1-3 시간미만	88	44.0
	하루에 4-5 시간미만	20	10.0
	하루 5 시간이상	10	5.0
채팅하는 때	오전	1	0.5
	오후	48	24.0
	밤	87	43.5
	새벽	5	2.5
	시간 구애 없음	59	29.5
채팅시작시기	유치원이전(만4세이전)	1	0.5
	유치원다닐때(만4-6세)	2	1.0

항목	구분	인원수	백분율
채팅시작시기	초등저학년(만7-9세)	18	9.0
	초등고학년(만10-12세)	66	33.0
	중학교 1-3학년	83	41.5
	고등학교 1-3학년	25	12.5
	대학교	5	2.5
채팅지속시간	1-2시간	58	29.0
	3-4시간	72	36.0
	5-6시간	35	17.5
	7-8시간	7	3.5
	8시간이상	28	14.0
사용아이디	본인의 실명	79	39.5
	닉네임	121	60.5

표 2. 온라인 채팅 시간에 따른 감정 변화

Table 2. Emotional change while on-line chatting

문항	변인	그렇지 않다	그렇다
스트레스가해소된다	A	22(26.8)	60(73.2)
	B	17(19.3)	71(80.7)
	C	4(20.0)	16(80.0)
	D	2(20.0)	8(80.0)
	합계	45(22.5)	155(77.5)
학업에 지장을 준다	A	34(41.5)	48(58.5)
	B	50(56.9)	38(43.1)
	C	9(45.0)	11(55.0)
	D	4(40.0)	6(60.0)
	합계	97(48.5)	103(51.5)
인내심이 향상된다	A	52(63.4)	30(36.6)
	B	45(62.5)	33(37.5)
	C	9(45.0)	11(55.0)
	D	8(80.0)	2(20.0)
	합계	124(62.0)	76(38.0)
중독성이 있다	A	37(45.2)	45(44.8)
	B	33(37.5)	55(62.5)
	C	4(20.0)	16(80.0)
	D	5(50.0)	5(50.0)
	합계	79(39.5)	121(60.5)
비밀스런대화가 가능하다	A	18(21.9)	64(78.1)
	B	23(26.2)	65(73.8)
	C	2(10.0)	18(90.0)
	D	3(20.0)	7(70.0)
	합계	45(22.5)	155(77.5)
해로운면보다 이로운면이더많다	A	38(46.4)	44(53.6)
	B	33(37.5)	55(72.5)
	C	7(35.0)	13(65.0)
	D	4(40.0)	6(60.0)

문항	변인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해로운면보다 이로운면이더많다	합계	82(41,0)	118(59,0)

변인 (채팅이용시간)
 A : 일주일에 1-3시간,
 B : 하루에1-3시간미만,
 C : 하루에4-5시간미만,
 D : 하루 5시간이상

표 3. 온라인 채팅 이용과 우울 정도
 Table 3. the ratio of the depression with the usage of
 on-line chatting

항목	구분	정상 상태	약간우울	상당한 우울	매우심한 우울
채팅 장소	집	162 (85,7)	11 (5,8)	6 (3,2)	10 (6,3)
	PC방	2 (100)	0 (0,0)	0 (0,0)	0 (0,0)
	학교	8 (88,9)	0 (0,0)	1 (11,1)	0 (0,0)
채팅 하는때	오전	1 (100)	0 (0,0)	0 (0,0)	0 (0,0)
	오후	43 (89,6)	2 (4,2)	1 (2,1)	2 (4,2)
	밤	73 (83,9)	9 (10,3)	1 (1,1)	4 (4,6)
	새벽	4 (80,0)	0 (0,0)	1 (20,0)	0 (0,0)
	시간구애 없음	51 (86,4)	0 (0,0)	4 (6,8)	4 (6,8)
채팅 지속 시간	1-2시간	53 (91,4)	3 (5,2)	0 (0,0)	2 (3,4)
	3-4시간	59 (81,9)	5 (6,9)	4 (5,6)	4 (5,6)
	5-6시간	31 (88,6)	1 (2,9)	2 (5,7)	1 (2,9)
	7-8시간	6 (85,7)	1 (14,3)	0 (0,0)	0 (0,0)
	8시간이상	23 (82,1)	1 (3,6)	1 (3,6)	3 (10,7)
사용 아이디	본인 실명	67 (84,4)	7 (8,9)	1 (1,3)	4 (5,1)
	닉네임	105 (86,8)	4 (3,3)	6 (5,0)	6 (5,0)

IV. 결 론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대학 1, 2, 3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채팅이용 현황 및 채팅 이용 시간에 따른 연구 대상자들의 감정의 변화를 알아보고 채팅 이용 실태에 따른 우울감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이번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채팅 장소는 집에서, 채팅대상자도 친구가 대부분이었고 전체이용 시간도 하루에 3시간미만으로 비교적 건전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팅 하는 때는 주로 오후나 밤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팅 지속 시간 역시 4시간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아이디는 반 이상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채팅 이용 시간에 따른 감정변화는 인내심 향상에는 크게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밀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보다는 좀더 솔직한 대화가 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채팅 이용에 따른 우울 정도는 역시 채팅 지속 시간이 길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연구 대상자들의 대학생이므로 온라인 채팅 이용 현황이 대체적으로 건전하게 나타났고, 감정의 변화 및 우울 정도를 파악한 부분에서도 크게 우려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연구도구를 보완하여 재 조 사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Byeon, Young Soon. , Eun Ha Lee, etc. "Addiction to internet among univeristy students and its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d depression"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cience Vol 15. No.2. 61~72. 2003.
- [2] Nam, Chin Yeol.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Related Vatiabe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1, No.1, 121~140. 2009.